

〈제 2 주제〉

민족이산의 국제적 맥락과 한국의 대외관계

이 기 택

(연세대 국제정치학)

외교사나 국제정치사에서 네이션 스테이트(nation-state) 형성 또는 민족국가 형성이라고 하는 것을 근대사에서 살피면, 100년 전 독일이 통일할 때, 또 이탈리아가 흩어진 자기네 민족을 결합, 통합하여 근대적인 통일국가를 형성하는 것이나, 또 섬나라로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오랫동안 오토만(Ottoman) 제국 하에서 민족이 흩어져 있었던 그리이스가 센트 페테스부르크(Saint Petersburg)나 런던(London)이나 파리(Paris)로 흩어졌던 민족들을 문화적인 전통을 가지고서 결합시켜 들어간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5000년 동안 단일민족으로 내려왔던 우리 민족은 개국을 하면서 거꾸로 흩어지는 역사적인 경험을 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령 이탈리아 통일과정에서의 “Irredentisme”—어느 지역에 있든 이탈리아 사람은 이탈리아로 집결시키고 통일시켜야 한다는 것—과 같은 것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를 줍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의 이산이나 한반도 문제는 우리 민족이 구한말이래 국제 무대에 등장한 이후 근대적인 민족국가를 형성하지 못한데에 기원이 있습니다. 서양에서는 민족의 이산이 근대국가를 형성해 나가는 출발점이 되었다 하는 것은 우리에게 근대적인 역사적 교훈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문제로 들어가서 이 민족이산의 국제적인 성격을 보면 두 가지의 카테고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 하나는, 잘 아시는 “식민지화”라는 건데, 구한말에 개국을 하면서 일본에 의해서 개국이 됩니다마는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가장 진요한 봉건제도의 생산기반이었던 토지를 수탈하게 됨

으로써 많은 사람이 만주로, 시베리아로, 하와이로 흘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식민지화”라고 하는 성격에서 민족이 산의 국제적인 성격이라는 것은 오늘 날 그대로 우리 동포의 지역적인 분포를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조선말로부터 근대국가를 형성하는 노력이 좌절이 되는데 그 과정중 이민 문제만을 연구한 분이 있습니다. 현규환씨라고 해서 학자도 아닙니다. 의사로 알고 있는데 대단히 두꺼운 충실향한 학문적인 업적을 일생을 통해서 남겨 놓았습니다. 거기에 보면 “유이민”(流移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대적인 국가가 인구가 남아돌아서 정책적으로 식민을 시키고 또는 강대국이 식민지에다 식민을 시키는 그러한 이민이 아니고 “유이민”, 흘러가는 이민이라고 하는 제목을 부쳤습니다만 이것은 역시 피동적으로 또는 강제적으로 토지를 빼기니까 할 수 없어서 만주벌판으로 시베리아로 이렇게 흘러 진 이민을 말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새벽에 라디오로 KBS를 들으면 매일같이 가족단위로, 마치 전화같은 퍼스널한 커뮤니케이션 비슷하게 사할린의 교포에게 편지를 받고 거기에 대해서 사할린의 우리 동포들에게, 가족들에게 소식을 전하는 그러한 방송을 듣게 됩니다. 사할린의 동포라는 것은 일본 사람들이 탄광에 강제로, 특히 2차대전중에 강제로 끌고가서 남아 있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 나라가 일본을 통해서 이 사할린의 동포들의 모국 귀환에 대해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는 중앙아시아의 스텝(Steppe)지방인 타슈켄트, 아마로켄트 등에 엄청난 우리 한국계 소련인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주로 해삼위, 블라디보스톡 지역에 살다가 소련 사람들이 일본말을 잘하고 일본하고 내용할 수 있는 그러한 첨자의 영향이 크겠다고 해서 하룻밤에 열차에 실어서 중앙아시아 고원지대에 갔다가 뿐려 놓은, 오늘날 중앙아시아의 우리 교민들입니다. 그 스텝지방의 불모지방에다가 뿐려 놓은 우리 교포들은 거기에서 벼를 심고 했습니다. 밀보다도 벼가 소련내에서 비싼데, 러시아말로 아그로노미라고 합니다마는, 소련내에서 한국계 벼농사의 농업기사는 아주 특별한 대우를 받고 대단히 비교적 부유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타슈켄트지방에는 오늘날 한국신문, 한국어방송, 연극이 있고 이 지역의 주민들은 한국의 모든 문화적인 자료들을 대학에서 많이 들여가고 있습니다. 그쪽에 유

명한 「문」이라고 하는 교수가 있는데 이 분은 2권으로 된 이민사를 썼는데 대단히 좋은 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지금 일본에 있는 조총련과 민단—2차대전 이후에 냉전이라는 것에 의해서 차단이 되었습니다—은 어쨌든간에 역시 대부분이 본국에 돌아오지 못한, 정용이라고 하는 일본의 강제노동법에 의해서 탄광에 대부분이 끌려갔던 사람들로 조직되어 지금 일본에 남아 있는 것입니다.

또는 하와이에 인신매매 비슷하게 사탕수수 재배를 위해서 팔려간 사람들이 서양에 대한 유이민의 첫 경우였습니다. 역시 이것도 식민지화 전후로 해서 우리 나라가 수난을 당하는 그러한 과정에서 나왔다고 봅니다.

또 남만주에 엄청난 우리 교민들이 있습니다. 이들도 잘 아시다시피 대부분이 식민지화 과정에서 만주로, 특히 토지를 찾아서 유이민이 된 피동적인, 어떻게 보면 강제적인 이동을 한 사람들입니다.

이 식민지화 과정이후 우리 교포가 2차대전 이후의 냉전이라는 것에 의해서 복귀를 하지 못하고 차단을 당하게 됩니다. 이것을 「강제차단」이라는 말로 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본에서 두 시간이면 민간항공기가 왔다 갔다 하는 데도 조총련이 이데올로기에서 차단이 되어 우리 나라에 들어오지 못하고 하던 것을 모국방문이라고 하는 특별한 정책적인 배려로써 많은 사람들이 몇 년 전부터 들어오기 시작했고 매년 정례적으로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2차대전 이후에 소련의 중앙아시아, 사할린 또는 중공 등지에 흘러진 민족들이 본국으로 복귀하는 것이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거의 완벽하게 오늘 날까지도 차단을 당하는 그러한 경우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도 아주 치열했던 것은 기본적으로 얄타회담에서 기인하는 미소의 한반도 공점인 공동의 점령정책으로부터 나온 한국전쟁입니다. 한국전쟁으로 인해 오늘날 우리가 현실적으로 당하고 있고 또 KBS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눈으로 본 이산가족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한국전쟁을 통해서 민족의 이산이라기보다는 더 구체적인 가족의 이산이라고 하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갈리고 형제가 갈립니다.

하나 특별히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이산가족을 낳게 되고 우리 민족과 국제정치하고 관련있는 부분은, 일본 사람들이 우리 교포를 북송이라는 형태로 이데올로기로 엄격히 차단된 북한에 보낸 것입니다. 2차대전 이후에 아마 공산권에 사람을 보낸 경우는 일본 밖에 없고 그 후에도 역사적으로 대

단히 비판적인 부분으로 남아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일본부인들이 있고 조선사람이 있겠읍니다마는 이들이 가서 완전히 차단이 되고 친척이 북한으로 들어가도 만날 수 없게 차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소위 북송이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한국전쟁에 의해서 이데올로기적으로 이 산가족이라는 것 이 생깁니다마는 여기에 잠깐 우리가 알아 두어야 될 “전쟁지도”하고 관련 되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왜 이산가족이 이렇게 많이 생겼느냐 하는 것은 UN 군이 작전지휘체계를 우리 군대와 함께 사용했기 때문에 한국전쟁의 전쟁지도하고 약간 관련이 있습니다. 맨처음 중공군의 개입으로 전략적인 방어의 단위가 있었습니다. 갑자기 중공군이 압록강을 넘게 됨으로써 전략적인 평가를 잘못했던 UN 군측은 맨처음 단위가 평양포기입니다. 1950년 12월 6일에 중공군이 평양을 입성했습니다마는 일단 평양을 포기하면서 평양으로부터 지금 임진강 근처의 고량포까지 약 1주가 채 못되는 사이에 트럭으로 후퇴를 합니다. 그래서 맨처음 평양포기에서 이 산가족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대동강을 넘을 때 UN 군이 강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1주일이면 평양을 재탈환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대동강을 넘을 때 전쟁에 금방 희생을 당하지 않아야 될, 나이가 많은 가장, 장남, 장녀 그리고 끊어진 대동강다리를 넘을 수 없는 꼬마라든가 부녀자라든가 이런 사람은 남겨놓습니다. 거기에서 일단 이 산가족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이 1주일이 오늘날 현실적으로 보듯이 4 반세기에 걸쳐서 만나지 못하는 남북한간의 탄식의 사유가 되고 또 엄연한 현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평양으로부터 고량포까지 후퇴하는 작전과정에서 피난민은 걸어서 내려와야 되었고 UN군은 트럭을 타고 후퇴를 하고 중공군 역시 걸어서 추격을 하기 때문에 평양에서부터 고량포까지의 사이에 대부분의 피난인들이 가운데에서 협공을 당합니다. 그래서 KBS에서 보셨는지 모르지만 사리원, 중화 등의 황해도 근처에서 이 산가족이 생기는 이유는 중공군과 UN 군의 협공 속에서 그 피난민들이 폭격으로 인하여 가족이 이산됩니다. 어디에서 헤어졌느냐고 물었을 때 아마 남하한 이 산가족의 3분의 2가 이 황해도 중간지역에서 이산이 되었다는 이유는 대부분 이 때문입니다. 또 작전상 군사작전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피난민을 학현으로부터 해주로 돌렸습니다. 북괴에 대한 심리전으로, 해

주에서 재빨리 진남포상륙설이라는 것을 빠라로 만들어서 그 피난민들에게 뿌리게 됩니다. 그 빠라의 유포는 미군과 일본군이 진남포에 상륙해서 평양으로 진격하고 있기 때문에 피난민들은 다 올라가도 좋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흘어지는 과정에서 완전히 통일이 되기 전까지는 남한에 가서 살겠다고 하는 부류, 또 올라가는 부류, 여기서 또 한번 이산가족이 생깁니다.

이것이 남한에 있어서는 잘 아시는 이산가족이라는 문제를 낳았고, 북한에서는 월남가족이라고 하는 정치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문제를 낳게 되었습니다. 월남한 사람들의 호적을 없애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복이 되었던 지역의 가족 중에 남한에 가족이 한두 명 없는 집안은 없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적을 완벽하게 종전대로, 일제시대에 남아 있던 호적을 그대로 연장을 하면 거의 월남가족을 한사람씩을 갖고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한국민족의 전통중에 하나입니다만 혈통주의라는 것은 일시적인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아무리 지우려고 해도 지울 수 없는 문제 중의 하나입니다. 아무리 공산주의 이론이라도 자기 누나와 형님과 아버지가 남한에 있는데 공산주의 교육을 가지고 그 가족 자체를 파괴할 수 있다고는 생각이 안 되는 것입니다.

남북회담 당시에 우리 대포가 평양에 올라 갔을 때 평양의 사람을 내놓지 못한 이유 중의 하나는 바로 이 점에 있다고 보아집니다. 북한이 남북대화를 시작해 놓고 북한사회의 빗장을 다시 닫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보아집니다. 문틈으로 닫은 커튼사이로 남한의 뭔가가 올라오는 그것에 대해서, 수많은 이산가족이 70년 당시에 20년을 기다렸던 가족을 찾을 희망이라는 것을 두었다는 자체가, 폐쇄를 기초로 해서 권력을 세워놓은 북한사회로서는 사회적인 동요를 막을 길이 없었다는 것이 북한이 남북대화에서 빗장을 다시 닫은 이유 중의 하나라고 보아집니다.

우리 나라의 앞으로의 과제는, 우리 민족을 같이 통합해서 하나의 네이션스테이트라고 하는 근대적인 모델의 민족국가로 형성해 나가는 출발점을 만드는 것입니다. 석민지화, 냉전, 한국전쟁이라는 열전 속에서 민족의 이산을 낳게 되는데, 이에 반해서 한국민족의 강렬한 혈통주의나 이러한 것을 누가 해결해 주지 않기 때문에, KBS가 방송망을 통해서 민족의 열망을 실현시키고 한 것이, 우연하게 한 PD가 뭐 할 것이 없나 하고 그러한 방송프로그램을 만들었던 것이 한국 민족주의의 강렬한 열정적인 발로로 나타났

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새로운 민족주의의 출발점이 되었던 것이라고 보아집니다.

둘째 문제에 들어가서, 이 산가족하고 한국의 외교적인 대응이라고 하는 문제, 문제에 비해서는 제목을 작게 잡았습니다마는 보다 현실적으로 남북한 관계는 빼고 제가 맡은 국제적인 관점에서 이 민족의 이산문제를 어떻게 조금이라도 완화시키고 또 해결해 들어갈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몇 가지로 보겠습니다. 이 이산가족 또는 민족의 이산이라고 하는 두 카테고리의 주민들 중 3분의 2가 공산권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주로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차단이 되어 있습니다. 이 흩어지고 또는 차단되어 있는, 대부분의 공산권에 속해 있는 동포들에게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하는 것은 한국의 기본적인 외교정책의 분야인 공산권에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 하는 방법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범주상 공산권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다고 보아집니다. 그 하나는 문화적인 접근, 둘째는 경제적인 접근, 세째가 정치적인 접근입니다. 물론 이 정치적인 접근에는 군사적인 전략적인 문제가 개입되겠습니다. 공산권에 대한 정치적인 접근에 있어 현실적으로 남북한의 분단, 또 그 배후에 있는 서방과 공산권이라는 대립과정을 보면 앞으로 단시일내에 풀려나가기에는, 극동의 미소의 대치나 중소의 대치가 해결되기 전에는, 한반도의 통합문제라는 것은 그렇게 쉽게 해결되지 않으리라는 것을 잘 압니다.

따라서 정치적인 접근이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바가 있습니다. 그 대안으로서 문화적인 접근이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또 이것이 조금씩 조금씩 눈에 크게 띠지 않지만 해결이 돼 나가고 있는 외교적인 대응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남만주에 있는 우리 교민들에게 여러가지 간접적인 방법으로 우리 나라 상표들이 들어가고 있읍니다마는, 남만주의 교민들이 간절하게 바라는 것은 자기네가 생산하는 생산물을 한국 정부가 좀 계획적으로 사 주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중공의 4대 현대화 계획이라는 각도에서, 10억이 먹고 살겠다고 하는 그러한 각도에서, 그 일환으로서 남만주의 교민들은 중공정부의 지원하에서 자기네 생산품을 우리가 계속 정책적으로 사 주었으면 하고 바라고 있읍니다.

또는 중앙아시아의 소련권내의 타슈켄트지방에 있는 교민들은 문화적으로 우리의 자료들을 신문에서부터 책까지 많은 것을 들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이데올로기적인 이러한 문화적인 접근이라는 것이 가능하게 되면서 그 선을 타고 한국계의 교민들과의 접촉 또는 어떤 의미에서 협통의 교류, 이러한 것들이 말하자면 계기가 될 수 있어 우리의 기본적인 한국의 공산권 접근정책과 우리 민족을 다시 찾자는 정책과는 대단히 일치점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혹 소련이나 만주나 어디나 간접적으로 그 사람들을 만나면 어디까지나 한국사람입니다. 서유럽에서는 독일이 100년전에 통일이 되고 이탈리아도 다 그렇기 때문에 국적주의가 곧 그 나라의 국민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우리 나라 사람의 혈통주의는 100번 미국에 가서 국적을 취득해서 미국 시민이 되었어도 한국 사람이라는 것을 감정적으로나 생활감정으로 벗어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기에 남만주, 소련, 사할린, 해상위 어디나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이라고 하는 그리한 관념을 철저하게 갖고 있습니다.

둘째로 제시할 수 있는 것으로 민족복귀운동을 이제는 강력하게 전개할 단계에 있다고 봅니다. 단순히 한국전쟁으로 가족이 분열된 것에서, 이 기점에서 보다 정책적으로 넓게 접근해야 할 것은 강렬한 민족복귀운동이라는 것입니다.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서유럽에서 오늘의 근대국가라고 하는 민족국가를 형성한 이탈리아나 그리스나 독일이건 한번은 민족국가를 형성하는 출발점에 이 민족복귀운동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날 전세계에서 흘어진 우리 교민을 어떻게 집결시키고 민족으로의 복귀를 할 수 있는 것이냐 하는 것을 하나의 운동으로 전개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안으로 한국이 한반도에 있어서의 민족주의를 어떻게 확립하느냐 하는 문제와 연결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70년대에 전라도대통령이냐 경상도대통령이냐 하는 대내적인 지역주의가 한국의 민족주의를 많이 와해시켜 왔습니다. 이런 갈등을 해소할 뿐 아니라, 식민지 이후 전 세계에 흘어져 있는 민족을 통합시키는 데 있어서도, 또 명전을 극복하는 차원에서도, 대내적인 정책적 관점에서 한반도의 비민주적인 위기를 극복하는 의미에서도, 민족복귀운동이라는 것을 국민적 차원에서나 정부의 차원에서 강력하게 실천해 나가는 것은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운동을 통해서

냉전의 긴장, 분단을 심리적으로 완화시키고, 자신감을 고취하는, 민족의 교류, 단결, 뿌리를 다시 한번 찾아보아, 우리 민족을 다시 찾는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와 장래적인 민족적인 희망에 연결시킬 수 있는 출발점의 하나를 마련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중에 손쉬운 방법 중의 몇 가지를 들어보겠습니다. 그 하나로 민족이 이데올로기로 단절된 것을 연결해 주는 가장 손쉬운 것은 방송정책의 강화입니다. KBS가 단파방송을 통해서 공산권에 대한 접촉을 긴밀하게 하고 있으며, 남만주의 젊은이들로부터 한국의 삼성(三星)에서 생산되는 라디오의 회로도 몇 권을 보내달라는 편지가 산더미처럼 들어 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민간의 협조를 얻어서 회로도를 보내고, 교과서를 보내고 또 때로는 라디오를 보내고 있습니다. 또 사할린에 있는 교포가 편지를 보내서 가족을 찾는 것에 대해서 그 답으로 단파방송을 통해서 가족을 이어주는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매스컴을 가볍게 취급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데올로기로 차단된 공산권의 우리 민족을 찾고 연결하는 중요한 매개체가 이 방송이라는 것입니다. KBS에서 수고를 합니다만, 얼마나 진지하게, 얼마나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이것을 얼마나 정책적으로 접근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보다 큰 노력이 앞으로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이 됩니다.

둘째로는 공산권 이산가족 모국방문 운동입니다. 외교적인 것입니다만, 영사협정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상대국하고 활발하게 추진해야 합니다. 앞으로 중공과의 연계 하나만 보더라도, 중공의 교민들이 속속 우리 나라에 이미 수십명이 들어왔다 돌아갔습니다만, 이러한 것을 일상적으로 정상화시킬 수 있는 영사협정 같은 것을 강력하게 외교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세번째로는 빈번히 좌절되었음니다만, 새로 민족복귀운동이라는 각도에서 민족교류청 또는 교민청의 신설입니다. 이 문제를 단순히 교민국이라고 해서 외무부에서 몇 명이 담당하기에는 정치적으로 행정적으로 여러모로 대단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모아 강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째로는 가능한 한 공산권의 동포가 생산하고 있는 생 산품을 정책적으로 매입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남만주의 교민들이 대

대적으로 팔 수 있는 농산물이나 생산품을 만들어 놓고도 중공내에서의 소비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것을 남한에서 사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계열화시키고 연결시켜 줌으로써 어떤 의미에서는 중공의 4대 현대화계획에 대한 경제적인 접근도 되겠습니다만 우리 교민정책이라고 하는 각도에서, 또 내걸은 민족복귀운동이라는 각도에서 정책적으로 해야 될 일 중의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것은 중앙아시아의 우리교민에게도 해당이 된다고 이렇게 보아집니다.

다섯째로는 신문사가 보다 노력을 해서, 우리 민족을 찾는데 자료화하고 또 국민에게 이것을 알리기 위해서라도, 우리의 특파원들을 가능한 한 직접 적이든 간접적인 방법이든간에 현지에 들여 보내고 침투시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활발한 교류와 자료수집이란 결과로 나타날 것이고, 상당히 중요한 것이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이 됩니다.

여섯째로는 이 세기에 돈도 없이 전쟁을 치룬 우리나라가 「88 올림픽」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체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여러가지 정책이 있습니다만, 민족복귀운동이라는 각도에서 집단적으로나 또는 개인적으로나 소련, 중공 기타 교민들을 모국방문초청을 하는 것이 우리가 전개할 수 있는 정책이 되지 않겠느냐 합니다. 또 그들을 초청하거나 또는 그들을 매개체로 해서 소련이나 중공에 대해 「88 올림픽」에 대한 연계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치적인 접근이 아닌 자연스러운 접근을 통해서 「88 올림픽」에 많은 공산권을 초치하면 우리나라를 관찰할 수 있는 역사적인 계기가 될 수 있는 좋은 방법의 하나가 됩니다. 「88 올림픽」이라는 슬로건을 내놓고 우리 교민에 대한 접근을 강력하게 해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중공에 많은 한국계의 체육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개인적 단위로나 또는 집단적으로 초청을 할 기회가 대단히 많지 않겠느냐 보아집니다.

일곱째로 중공이나 사할린이나 중앙아시아나 간에 거기 있는 우리교민들에게 우리 국민들의 자발적인 차원으로 가능하면 단파수신기가 있는 라디오를 발송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매스컴 기관인 KBS가 담당하기에는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관청에서만이 아니고 민간차원에서 어떤 협의체를 만들어서 그들이 요구하는 상품이나 체자라든가 이런 것을 보내줌으로써 국민운동의 일환으로 전개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민족복귀운동은, 민간차원에서 국민의 많은 지원을 받아, 또 우리가 이제 식민지를 끝내고 냉전을 극복하는 차원에서, 또 남북한 통일어서 금세기에 들어와 개국이래 우리 민족주의를 재확인시킨다는 그러한 정치적인 일환으로 구체적으로 실천해 나가는 것이 여러가지 면에서 우리 나라의 평화와 민족의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아집니다. 이 정열을 가지고 민족의 단합이나 복귀에 노력하지 않을 때는, 우리가 내다보는 80년대와 90년대의 국제정치는 지금의 중동의 레바논사태나 또 세계적인 위기를 보듯이 또 한번 한반도를 갈기갈기 찢어놓을 위기가 없으리라는 법도 없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단단하게 민족의 단결이나 평화에 절대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그 힘이 이러한 민족복귀라고 하는 민족주의의 재확립을 통해서 앞으로의 시대를 극복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제 2 주제 토론〉

사회 : 김 세원(서울대 국제경제학)

토론 : 김 달중(연세대 정치학)

박 상식(외교안보연구원 국제정치학)

정 종욱(서울대 국제정치학)

사회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기택 교수께서 민족이 산의 국제적인 맥락과 한국의 대외관계에 관한 주제 발표를 하셨습니다. 주로 국제정치적인 측면에서 민족이 산이 발생한 역사적인 배경을 설명하셨고 그리고 이러한 민족이 산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인가 하는 접근방법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발표내용 자체가 명쾌하고 체계적이어서 대부분 다 잘 이해하셨을 것 같아서 제가 요약을 생략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학술회의라면 결론부분에 대해서 서로 견해차이를 많이 보이는데 이번 이 주제의 발표에 있어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의 하나가 결론에 있어서 대부분 방향이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주로 관점이나 접근방법에 대해서 다소 견해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연세대학교에 계시는 김달중박사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김 달중

이기택 교수님 발표 꼭 유익하게 들었습니다. 배운 바가 많습니다. 민족이 산의 국제적 성격을 주로 석민지정책 요인과 냉전 이념의 요인으로써 설명해 주신 데 전적으로 동감하고, 또 그러한 이산에서부터 결과되는 민족적 아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민족적인 통합을 위해서 대단히 훌륭한 일곱 가지의 방법을 통한 민족복귀운동의 내용에 대해서도 꼭 흥미있게 들었습니다.

발표하신 논문을 곱곰히 들으면서 느낀 것은 우리가 오늘날 이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이산이라고 하는 말과 이주라고 하는 말을 많이 혼용하여 쓰기도 하고, 더욱더 우리는 습관적으로 이산이라고 하는 말을 씀으로 해서 모든 문제를 포괄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습관에 또 그러한 인식에 잠혀있

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었읍니다. 그래서 결국 이산이나 이주라고 하는 말을 정의하는 데 있어서는 어디까지나 주관적인 판단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문제를 보다 사회과학적인 그러한 측면에서 옳게 파악을 하고 분석을 하고 연구하기 위해서는 이산과 이주라고 하는 문제에 대한 보다 명확한 개념정의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미 김경동박사의 기조논문발표에서도 그것이 잘 설명되었읍니다만 아무튼 객관적이고 사회과학적인 기준에 의한 이산의 개념정의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필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읍니다. 말하자면 동기라든가 상황이라든가 하는 여러가지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이 문제가 정의되어야 되리라고 보겠읍니다만, 우리가 이산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다 부정적 측면에서 인식하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동기면에서의, 혹은 상황적인 문제에 있어서의 혹은 시대적인 배경에 있어서 식민지정책이라든가 전쟁 혹은 타의적 강제적인 상황속에서 생존을 위해서 이산했다고 하는, 민족적 차원에서 보았을 때 불행히도 부정적인 그러한 의미로 우리가 이 문제를 파악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시대나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 한국민족의 이주라고 하는 그러한 긍정적 의미로서의 이주의 역사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같고, 그런 이주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도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문제가 아닌가, 즉 자주적인 국가정책에 의해서라든가 또는 평화시 또 자발적으로, 또 전쟁이 아니라 국제적인 협력을 통해서 자기목적의 실현의 방법으로, 또 자기발전의 방법으로써 그러한 이주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진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식구가 헤어진다고 하는 것에는 여러가지 유형이 있겠읍니다만 헤어져 산다고 하는 것을 단순히 역사적인 맥락에서 부정적인 뜻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한국사회 또 세계속의 한국이라고 하는 순기능적 기능으로서도 보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단순히 이 차원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 특수성만 가지고서 이산문제라고 하는 것을 부정적 차원으로만 본다고 하는 것은 사회과학적인 측면에서 조금 더 연구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산가족문제를 위요해서 근간에 우리가 경험했던 민족적인 감성은 충분히 거기에 같이 동참하면서도 우리가 문제를 앞으로 더욱더 진지하게 연

구하는 데 있어서는 그런 인간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하는 생각입니다. 왜 이런 얘기를 특히 강조하는가 하면 과거의 역사로부터 또 과거의 민족적 체험으로부터 우리가 의미를 깨닫고 앞으로 민족의 발전과 행복을 위해서 과거를 어떻게 미래로 해석하고 조화시키느냐 하는 데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볼진대, 한국사회내에서나 또는 국제사회에서 서로가 일가친척과 헤어진다고 하는 문제를 단순히 부정적 차원에서만 본다고 하는 것은 더 많은 민족적인 저력과 발전 가능성을 감소시키는 그러한 결과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이기택선생님이 말씀하신 두 가지 주제의 흐름에 따라서 간략히 저도 느낀 바를 부연하고 싶습니다. 첫째, 이교수께서 국제적 성격은 잘 지적하셨기 때문에 더 말씀드리지 않겠고 다만 그러한 성격 자체에서 우리는 국제정치적인 의미가 뭐다 하는 것을 이 시간에 한번 재음미해 보는 것은 대단히 의미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미 이교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우선 우리 한국의 경험에서 보았을 때, 이것은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나라가 자주적이지 못하고 부강하지 않으면 약할 때는 항상 이런 민족적인 비극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또 외세에 너무 의존할 때에도 대개 역사에서 보면 이러한 민족이산이라고 하는 경험을 종종 갖게 되는 경우가 있고, 특히 한국의 경우에는 너무나 절실한 사실이라고 보겠습니다. 또 이교수께서는 이념적인 요인으로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결국 전쟁이지요, 이념적 문제에서의 전쟁의 결과로서 이산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문제가 국제정치적인 측면에서 보면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이러한 민족의 이산이라고 하는 그러한 부정적이고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한 것은 우리가 약했기 때문에, 우리가 식민화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외세에 의존을 했기 때문에 발생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그런 틈바구니에서, 결과적으로 보면, 6·25와 같은 전쟁을 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진단한다고 할 것 같으면 우선은 우리가 부강해져야 되겠다 말입니다. 좀 더 자주적이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부강하고 자주적이어야 되겠다는 것, 또 우리가 강대국관계에 있어서의 국제정치에 있어서 한반도가 전쟁으로 다시 치닫는 길을 피한다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이 시점에서 이

산가족 문제를 놓고서 이렇게 토의하는 과정에서 대단히 중요하게 되씹어보아야 할 그런 의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 이념적인 요인에 있어서 하나 지적이 안 된 것은, 과거적인 차원에서 사실은 국력이 약했을 때에 이산의 결과가 초래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산의 요인으로 많은 경우가 일본식민정책부터 지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적어도 조선중엽 16세기 정도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때도 우리가 국력이 약했을 때 혹은 그때 우리 국제정치를 잘못 관리한 탓으로 임진왜란이라고 하는 전쟁이 발생되었고 그 임진왜란때문에 그 당시 보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일본에 끌려가므로 해서 이산가족의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중의 한 사람이 「한복입은 사나이」로 등장해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또 청나라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힘의 부족으로 인해서 침입을 받아 상당한 민족의 이산이라는 결과를 초래했고 또 그것은 한 번의 전쟁에서 벌어진 이산이 아니라 계속 강요되는 우리 민족의 이산을 강요받아 왔다고 하는 것, 상당 기간 동안 우리의 젊은 사람이라든가 혹은 젊은 여자들을 청나라에 갖다 바쳤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역사에서 너무나 잘 아는 것입니다.

역시 우리의 과거의 경험에 의해서 지적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보여지는 테, 이념요인으로 하나 더 지적이 되어야 할 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이념의 요인으로서 단순히 공산주의와 민주주의를 남북간에 한국분단의 결과로서 이념적 요인을 생각하는 것에 더해서, 앞으로 점점 더 우리 민족이 긍정적 측면에서의 이산 혹은 이주가 될 때 그들을 어떻게 결속시키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이념적인 요인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나중에 다시 말씀 드리겠지만 이주해 있는 사람들간에 혹은 이산되어 있는 사람들간에 서로가 한국 국민으로서의 궁지를 가질 수 있고 같은 가치를 믿으며 서로가 서로 인식하고 잘 살 수 있고 좋은 그러한 국가를 발전시켜 나간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있을 수 있는 이산이라고 하는 문제를 막을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이념요인을 얘기할 때 또 한 차원의 이념적인 요인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민족통합의 문제인데 결국은 민족복귀운동으로서 일곱 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한 것은 대단히 흥미있는 제안이라고 생각이 됩니

다. 다만 제가 하나 부연하고 싶은 것은 통합의 개념도 사회과학적으로 연구해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거기서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서 대상입니다. 통합의 대상이지요. 범위의 문제입니다. 또 하나는 방법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통합의 대상, 범위문제를 남북한차원으로 놓고 보는 것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한국과 다른 일본이라든가 중공이라든가 혹은 미국 소련 등 다른 지역에 사는 우리 한민족과의 통합문제를 분명히 생각하고 통합 문제를 논의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거기에 따라 방법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는데, 남북한간의 민족적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방법에 있어 국가 정부의 통합 방법 밖에 없는 것이지요.

제가 보기에는 정치적 구조적 통합을 통해서 즉 통일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민족적 통합이라고 하는 목적을 실현할 수 있다고 보는 반면에, 그 남북간의 통일이 되지 않은 상태, 되기 이전의 상태와 나아가서는 우리 한국과 다른 여타 나라에 있는 우리 민족과의 통합이라고 하는 것을 같은 성격의 통합개념으로 보아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있어서도 이교수께서 민족복귀운동의 하나의 중요한 내용으로서 문화적 접근방법의 말씀을 하셨읍니다. 또 경제적인 접근방법도 말씀하셨는데 대단히 훌륭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 것을 합쳐서 일종의 문화통합이라고 하는 그러한 개념을 사용할 수도 있고 또 나아가서는 화합이라고 하는 말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이고 하나의 정부적 통합을 하는 것과, 한국 사람이 외국에 나가 있는 우리 민족과 통합한다고 하는 것은 뭔가 좀 다른 차원의 문제인것 같아요. 그런 차원의 민족통합이라고 하는 말은 좀더 달리 우리가 생각하고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문화의 통합, 서로가 다른 나라에 살고 있고 서로가 다른 국적을 가지고 있지만 한국 민족으로서의 하나의 전통문화적인 유산, 가치관, 이런 것을 서로가 같이 나누므로해서 얻어질 수 있는 하나의 결속, 하나의 화합, 그런 의미에서의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직접 남북간의 통합을 이루므로해서 남북한에있는 민족이 합친다고 하는 것과 구별이 되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에게 할당된 시간이 너무 지나서 더이상 말씀을 못드리고 여기서 끝내

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사회

감사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근본적인 견해의 차이라기 보다는 코멘트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외교안보연구원(外交安保研究院)의 박상식 박사께서 코멘트를 해주시겠습니다.

박 상식

이교수의 발표 중에서 몇 가지 문제점이라고 할까 이런 것을 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것이 외교적인 차원에서 어떠한 의미가 있겠는지 이런 것을 좀 생각을 해 보고자 합니다.

김교수께서도 지적하신 것인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개념정리를 우선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첫째 이 산가족문제와 민족이 산문제는 다른 것입니다. 지금 이기택교수께서 취급하신 문제는 주로 이산민족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최근에 가장 관심을 가지고 또 토의를 하고, 또 연구를 하고, 또 여러가지로 고민을 했던 문제는 이산가족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면 이산가족은 무엇을 말하느냐? 제 나름대로 정의를 해 본다면 이산가족은 남북한 분단에서 발생한 것으로 이산가족 문제는 분단상태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로 전쟁하에서 강제적으로 가족이 분산되었다는 것, 이것은 둘째의 특징과 직접 관련되는데, 둘째는 가족 전체가 이주하지 못하고 특히 직계(直系)핵가족이 분열이 되어서 일부는 북한에 남고 일부는 남한에 강제로 혹은 자의로 내려오게 되었다는 것이며, 세번째 특징은, 이것이 저 개인적으로는 외교적인 차원에서 중요한 문제라고 보는데, 이 이산된 가족이 상호방문은 물론 상호통신이 완전히 두절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계 역사상 유례를 볼 수 없는 사실입니다. 유태인들이 자기들의 고국인 이스라엘에서 분리되어서 각국에 흩어져서 사는데 이것을 「디아스포」라는 말로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역사적으로 회고해 볼 때 하나의 이산민족 문제로 생각됩니다. 외교적 차원에서 대상이 되는 것은 이산민족의 문제인 것 같은데 이산민족의 문제를 이교수께서 말씀하신 몇 가지 제의 그대로 정의할 수 있을 것인가 검토를 해 보아야 되지 않겠는가 합니다. 물론 일곱 가지 제의는 이산민족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도움

이 될 수는 있지마는 이산가족문제 해결방법과 이산민족 해결문제를 분리해서 정책건의도 해야 하지 않겠는가 합니다.

이산민족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저는 세 가지 형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유태형입니다. 유태형은 유대인들이 외국에 가서, 강제적으로 혹은 자발적으로 가서 정치적으로 그 거주국의 국민이 되는 것입니다. 국민이 된 후에도 유대문화를 계속 유지하면서 자기들의 조국인 이스라엘과 계속해서 정신적인 정치적인 유대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두번째 형태는 중국형입니다. 중국형은 자기들이 기주하는 국가의 국적을 취득하고 그 국가의 국민이 되고 또 자기들의 조국과의 관계를 단절합니다. 그러나 문화적으로는 중국인으로서의 자부심과 중국문화를 계속 유지하는 것입니다.

세번째 형은 서구형입니다. 서구의 폴란드 사람, 스웨덴 사람, 혹은 프랑스 사람들이 미국에 이민와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앵글로색슨 문화에 흡수되어 거주국의 국적을 취득함과 동시에 문화적으로도 앵글로색슨 문화에 큰 의미에서 동조하고 본국과의 관계를 거의 단절하고 미국시민으로서 아이덴티티(identity)를 유지하는 경우입니다.

우리 한민족의 경우에는 어느 형을 택할 것이라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되겠는데 저 개인적인 의견으로서는 이스라엘형을 택해야 되지 않겠느냐 합니다. 미국에 이민을 간다, 라틴아메리카에 이민을 간다, 중동에 이민을 간다, 아프리카에 이민을 간다, 또 과거에 분산된 우리 민족들이 시베리아에 있고 만주에 있고, 또 일본에 있는데 이들을 한국에 돌아오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거주국의 국적을 취득하고 거주국 국민으로서 정정당당하게 살면서도 조국인 한국과의 유대를 계속 유지하고, 한국민족으로서의 자부심을 계속 유지하고 또 문화적으로 한국문화를 계속 유지 발전시키는 그런 한국 민족을 기르는 것이 우리 외교정책상의 과제입니다. 따라서 일본에 거주하는 한국민족을 한국에 돌아오도록 하는 운동을 지금 우리는 전개해서는 안 될 일이고 일본국민이 되도록 오히려 장기적인 의미에서 하되 다만 문화적으로 한국민족으로서 자부심과 한국문화와 전통을 계속 유지하도록 우리가 외교적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는 이교수께서 제의한 몇 가지 방법은 상당히 좋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컨대 「88 올림픽」에 한국민족들이 가능하면 참가토록 해서 한국이라는 반도에 거주하는 우리 한국인들이 얼마나 자부심을 가지고 잘 살고 있는지, 또 얼마나 떨어져 있는 민족을 그리워하고 있는지를 직접 보고 느끼도록 하는 그러한 방법은 좋은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외교적으로 당면하고 있는 가장 중대한 과제는 이산 가족문제입니다. 외교적으로 어떻게 이산가족문제를 활용을 해서 우리가 남북대결에 있어서 대북우위를 확보하는 방법으로서 이용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 교수께서 직접 취급을 안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적당할런지 모르겠읍니다만 아주 중대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몇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이산가족문제는 인도주의적인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정치적인 기타 모든 차원을 따라서 모든 인류가 동의하고 동정할 수 있는 호소력을 가진 문제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국제무대 특히 UN기구 또 산하전문기구 그리고 비동맹이라든가 기타 지역 기구를 통해서 이 인도주의적인 문제를 계속 강조하고 또 각국에서 활동하는 외교관 및 기타 한국국민들은 이 문제를 정치적인 차원을 떠나서 인도적인 차원에서 최소한도 상호 방문은 기대하지 못할 망정 상호 서신교환이라도, 곧 오는 연말에 서로 연하장이라도 교환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고 호소한다면 우리는 궁극적으로는 외교적인 승리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개 이것인데 한마디로 하고 싶은 것은 이산 가족문제와 이산민족문제를 개념적으로 구별을 해서 우리가 그에 적응하는 정책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회

감사합니다.

아까 먼저번 세션에서는 토론에 참가하신 분들이 각각 전공을 달리하셨기 때문에 상당히 산발적으로 여러가지 측면에서 주제와 관련해서 많은 다양한 토의가 있었습니다. 반면에 이번 세션에서는 세 분 토론자 모두가 국제정치 관계를 전공하셨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시각이라든지 접근에 있어서 상당히 근사점을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박상식박사께서 개념정립문제와 접근방법에 대해서 코멘트를 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대학교 정종욱교수께서 코멘트를 해 주시겠습니다.

정 종욱

항상 마지막으로 발표를 하거나 토론을 하게 되면 앞 분들이 많이 얘기를 해서 별로 얘기할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이 통례가 되어 있읍니다마는 이번의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인 것 같습니다. 이기택교수께서 사실은 학문적으로 아주 미개척분야라고 할 수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체계있게 분석을 해 주셨고 또 토론을 앞서 해 주신 김달중교수와 박상식교수께서 전부다 자세하게 기본적인 문제는 제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더 추가할 것은 없읍니다마는 우선 민족복귀냐, 민족통합이냐, 또는 이산가족이냐 민족이 산이냐, 이민이냐 유이민이냐, 여러가지 개념 문제가 나왔읍니다마는 궁극적으로 볼 때는 문제의 성격이 크게 다르지 않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개념적으로 볼 때는 구별할 수 있겠읍니다만 현실적으로 볼 때 결국 이 민족이 산이라고 하는 것이 이산가족이라고 하는 데에서 시작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엄격하게 따진다면 6·25로 인한 민족이 산에 비해서 전쟁이전의 이산가족의 경우는 유이민(流移民) 혹은 민족이 산의 큰 카테고리에 넣어가지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가 되겠읍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문제를 접근할 때는 결국은 같이 뭉쳐가지고 얘기를 해도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교수께서 민족이 산의 국제정치적 성격을 규정하시면서 6·25로 인한 이산가족문제 뿐 아니라 식민지시대 일제하에서 36년동안 식민지 통치를 받고 있던 그 기간동안 나라밖으로 나갔던 우리의 민족들을 포함시켜 발표한 것은 상당히 환영할 만한 그런 시각이라고 할 수 있읍니다.

여기서 하나의 에피소드를 말씀드리면, 제가 직접 경험한 것인데, 1979년에 소련에서 국제학술회의가 있어서 한 3주 정도 다녀온 적이 있는데, 거기서 우리 교포를 많이 만났읍니다. 이기택교수께서도 마지막 대책부분에서 많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소련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의 교포들이 아마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는 것 보다도 훨씬 숫자가 많고 또 그분들의 조국에 대한 향수라고 하는 것이 적어도 제 자신이 생각했던 것 보다도 훨씬 많다고 하는 것을 알고 상당히 놀란 적이 있읍니다. 그분들이 하나같이 말씀하시는 것이 단파방송을 들을 수 있도록 단파라디오를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것

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소련에서는 소비물자가 굉장히 귀하기 때문에, 저희가 만난 분이 소련의 과학원에서 상당한 명성을 얻고 있는 그러한 고명한 학자였고 월급은 소련 정부내에서 장관급의 월급을 받고 있는 분이었지만 그분마저도 단파방송을 듣기 위해서 보다 더 성능 좋은 단파라디오를 구하는 것이 소원이라고 저희에게 누누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것을 저희가 보고 역시 민족이산, 이산가족 그리는 것이 비단 한반도 내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온 세계에 뻗쳐있는 국제적인 문제가 아니냐 하는 것을 절실히 느꼈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려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민족이산의 국제적인 의의를 말씀하시면서, 몇 가지 말씀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을 하시고 얘기를 하지 않으셨다고 생각합니다만, 첫째 제가 볼때는 이번 KBS가 벌인 민족이산, 이산가족문제라는 것이 과거 어떠한 국가에서도 예를 찾아 보기 힘들 정도로 성공한 케이스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평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특히 2차대전 이후에 냉전적인 분위기 하에서 같은 민족이 두 개의 다른 이데올로기 체제 하에서 분단을 강요당했던 케이스가 한국 뿐만이 아닙니다. 독일도 있었고 월남도 있었습니다. 또 문제의 성격이 다르기는 하지마는 중동에서도 팔레스타인 난민이라든지, 난민이라는 그런 이름을 붙여서 사실상 이산가족문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월남은 공산화가 되었으니까 사실상 문제의 성격이 변질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독일의 경우를 비교해 보게 되면 우리 한국의 경우와 비교가 안될 정도로 이산가족의 해결함에 있어 그들의 경우가 성공한 경우가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가지 상황적인 여건이 있겠습니다만 역시 그런 점에서 우리의 오늘 이 자리의 토론의 가장 중요한 시발점이 되었다고 할 수 있는 이산가족찾기운동은 국제정치학상으로도 그 의의가 결코 과소평가될 수 없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저 개인적인 평가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KBS와 관련지워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산가족, 적어도 10만이상의 이산가족이 가족을 찾겠다고, 핏줄을 찾겠다고 등록을 했었고, 그중에 만명 이상의 이산가족들이 해결했다는 사실 하나만 볼 때도 어떻게 보면 이것은 노벨평화상을 수상해도, 그렇게 순수한 의미에서의 인도적인 그런 차원에서 보더라도 결코 의의가 없지 않다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았습니다.

또 한가지는 이 산가족찾기운동을 통해서 한반도에 아직도 분단상태, 특히 2차대전이 나고 국민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외부적인 결정에 의해 나라와 민족이 허리를 짧렸던 그러한 상황이 아직까지도 존재하고 있다는 그러한 의미에서, 그 동안에 데 땅트라든지 주변정세의 변화에 의해 한반도의 정세가 바깥 세계에 잘못 알려지는 그러한 측면이 없지 않았지만 이번에 이 산가족찾기운동을 계기로 해서 한반도에 존재하고 있는 냉전의 존재라고 하는 것이 밝혀지는 것이 아니겠느냐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우리의 한반도 정세에 적어도 상당히 오래 두고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중요성을 이번 이 산가족찾기운동이 갖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교수께서 지적하신 대공산권 접근에 있어서도, 사실은 적지 않은 그러한 결과를 가져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역시 우리가 공산권과의 관계는 문화적인 교류, 경제적인 교류, 비정치적인 차원의 접근도 상당히 중요성을 갖는 것이지만, 궁극적으로 볼 때는 역시 정치적인 문제의 해결이 없이는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역시 대공산권 접근에 있어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남겼다는 데에는 모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문제의 핵심은 역시 정치적인 관계의 돌파구를 찾는 것, 그런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한 말씀만 드리면 민족통합, 민족복귀, 이런 얘기하고 관련지위 가지고, 민족복귀라는 것은 이 교수께서 발표하실 때에도 남북한의 지리적인 위치를 떠나 가지고 다른 세계의 각지에 흩어져 있는 동포들, 공산지역까지 포함을 하는 것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우리 한민족을 다시 핏줄로서 엮어 주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의 민족으로서 의식이 흐려지고 있는 그런 것을 전제하시고 그러한 민족의식을 다시 고취시켜 주는 것으로 그러한 것을 얘기했고, 또 민족통합도 넓은 의미에서의 이 산민족의 재결합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역시 민족통합은 남북한간의 군사분계선에 의해 강제적으로 격리당하고 있는 한민족의 재결합이다, 그렇게 일단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발표에서는 분명하게 그것이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그렇게 나누어 볼 때는 역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얘기하고 있는 문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민족통합의 문제가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산가족찾기는 원초적으로 민족통합의 문제이고 민족복귀의 문제는 민족통합 특히 이 산가족찾기운동에서 좀 더 발전적으로 확산시켜 나가겠다는 그러한 노력의 하나에서 얻어진 부산물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역시 문제의 핵심은 민족통합이다 하는 그런 얘기로 결론지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KBS의 이 산가족찾기운동이 나아가서 발전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민족이 산 문제는 궁극적으로 남북한간의 민족통합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이 아니냐, 이것이 제 생각입니다.

하나만 덧붙인다면 민족통합 특히 남북한간의 이 산민족의 결합이라는 것으로 문제를 제한시켜 볼 때 하나 지적하고 넘어가야 될 것은 민족이라고 하는 것, 북한과 남한에 거주하는 사람들 모두가 같은 펫줄을 타고 나고 또 같은 문화습관 또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단일민족인 것은 분명합니다만 벌써 분단된 상태에서 30년에 가까운 시일동안 흩어져 살았고 그 결과 민족 자체에 대한 개념이 남북한간에 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북한에서 보는 민족이라는 개념하고 남한에서 생각하는 민족하고는 전혀 다른, 즉 민족 자체에 있어서도 이질성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민족통합의 하나의 전제조건으로서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산가족찾기운동 혹은 민족이 산에 대한 학문적인 검토라는 것이 민족의 이질화를 해소시켜 주는 그러한 하나의 디딤돌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사회

감사합니다.

KBS 캠페인 때 보여준 열기와는 달리 상당히 회의가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침착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실 가슴만 갖고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시점에서 냉정하게 민족이 산 문제를 보다 과학적인 측면에서 분석하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자는 데 본 회의의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주제발표에 대한 근본적인 어떤 견해차이는 없고 주제발표에 대한 보완적인 성격을 띤 토론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간단히 주제발표자께서 코멘트에 대한 코멘트라고 할까, 견

해를 말씀해 주시고 다음은 방청석에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택

김달중박사님, 또 박상식박사님, 또 정종육박사님께서 제 논문 이상으로 좋은 코멘트가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거기에 대한 무슨 큰 그것이 없기 때문에 한두 가지만 부연하고 끝내겠습니다.

민족복귀라는 말을 왜 썼느냐 하면 이 석민지에서 펴동적이든 강제적이든, 우리가 “유이민”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에서 보듯이, 흘어져 있던 사람들과 관련해서입니다. 아까 박상식교수께서 말씀하신 유태형으로 거기 가서 사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살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자유롭게 한반도에 다시 들어왔다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의미에서 통합이라는 말 대신에 복귀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물론 제 논문에서 남북통일 문제는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족통합문제 보다도 군사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전혀 다른 접근에서만 가능한 문제이기에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이 분단의 위기라는 것이 아이러니컬하지만 우리가 지금 이산가족의 슬픔을 한탄하고 가족의 핏줄을 찾자고 아우성을 치지마는 69년에 철군이 시작되면서 남한에 있는 많은 주민이 무서워서 미국으로 이주를 간 것 역시 유이민의 일종이라고 보아집니다만, 이런 또 한번의 한반도의 위기가 올 수 있는, 즉 민족이 또 한번 분열되고 분산되고 지리멸렬 될 수 있는 이런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의 하나는 밖에 있는 수십만, 수백만의 우리 동포들이 자기의 모국에 전쟁이 있어서는 안되겠다고 하는 이러한 간접적인 국제적인 차원의 외교압력 같은 것이 지금 현시점에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민족복귀, 이러한 것을 상정을 한 것입니다.

다만 여기서 분단, 이산, 비통합에 대한 민족의 복귀운동에 기초(base)가 무엇이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 남만주의 주민이 북한에는 그렇게도 안 가려고 하고 남한의 방송을 많이 듣고 남한에 오려고 하느냐 하는 문제는, 지금 정종육교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정치 학계의 일로 모스크바에 들어가서 우리 교민을 만났을 때에 왜 그렇게 친절히 교류를 하자고 하느냐, 왜 단파방송을 북한 것은 듣지 않고 남한 것을 많이 듣느냐 하는 것을 곰곰히 생각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민족복귀운동의 기초가 뭐냐 하면 한반도에서 5,000년동안 내려온 민족전통을 기초로 해야 되겠고 또 한국전쟁의 의미는 자유라든가 민주주의라든가 자유주의 경제체제라든가 이러한 근대국가로서의 성격을 지니는 것이라는 맥락을 발휘할 때만이 민족복귀운동이 성공할 수 있다고 보아집니다.

끝으로 학자의 의견입니다마는 이번 KBS 사전에서 참 좋은 국제적인 우리 나라의 P.R 도 되었고 여러가지 의미를 띠었읍니다. 하지만 우리 남한 내부에 얼마나 커뮤니케이션이 없었으면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30년동안 가족을 못 찾고 있었느냐, 얼마나 디스커뮤니케이션이 되었느냐, 이것을 반성해야 될 것이고, 또 역대의 정부들은 어떻게 그런 것을 정치적으로 내비려두었고, 방임을 했고, 고통을 당하게 두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북한이 앞으로,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이질적인 민족으로서, 같은 동포지만은 우리 남한에 덤벼들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렵더라도 밖에 있는 주민, 북한에 있는 주민에 대해서 강력하게 정열을 가지고 뚫고 들어갈 수 있는데 까지는 커뮤니케이션을 더야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끝으로 학자 스스로의 비판입니다마는 이 주제에 대한 제의를 받고 사실 쉽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쉽게 썼다가 찢어버리고 그래서 원고가 늦었읍니다마는 이 원고를 쓰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읍니다. 그래서 어려운 문제로구나 하는 것을 알았읍니다. 어떻게 보면 서양에 가서, 저를 포함해서, 학자라고 공부를 하고 박사학위를 받고 돌아왔읍니다만,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학자들이 너무 연구가 부족했지 않느냐, 자료를 하나 보려고 해도 없는 그러한 비판으로 제 코멘트는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

감사합니다.

아까 이번 회의의 특징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는데 또 다른 특징중의 하나가 딴 어떤 학술회의 보다도 짧은 사람들이 많이 방청을 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얼마전에 신문에서 보니까 「이 한심스러운 행렬」이라고 하여 짧은 사람들이 텔레비전의 홍미프로에 출연하려고 밤을 새우면서 장열의 진을 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았는데 오늘 짧은 사람들이 많이 참석을 한 것을 보고 과연 이 민족이 산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냐, 결국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러한 민족이 산문제를 해결해야 될 주인공이 아니냐, 하는 의미에서 상당히 흥미롭게 관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났지만 딱 한 분만 질의를 받겠습니다.

홍 대환(성균관대 학생)

김 달중 교수님께 아까 토론하신 것 중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이기택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민족복귀운동의 일곱 가지 방법을 쭉 예시하셨는데 민족복귀운동이 민족통합으로서 얘기가 되었고, 또 박교수님께서도 그러한 민족복귀운동은 어떤 민족의 유대감이나 공감대를 형성하는 그러한 방법으로서 제시된 것이라고 제 나름대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김교수님께서 통합의 대상과 범위를 말씀하시면서 대공산권에 있어서의 민족의 통합과 남북한간에 있어서의 민족의 통합은 방법을 달리해야 되고 성질을 달리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말씀이시고, 남북한에 있어서의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의 통합 즉 어떤 체제의 통합 없이는 민족의 통합이라는 것은 이루어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체제의 통합이라는 것은 이념의 통합을 말하는 것이고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통합을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알고 있는 민족의식, 민족주의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공산주의나 민주주의 곧 자본주의를 초월하는 그러한 의식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민족의 유대감이 우선되고 그 다음에 체제의 통합도 이루어 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교수님께서는 반대로 체제의 통합이 있어야지만 민족의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 달중

그렇게 복잡한 얘기는 아니고 간단한 얘기인데 지금 여러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본질적으로 같은 내용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분류해서 얘기한 것은 통합대상과 통합지역으로 볼 때 남북한간의 민족이산이라고 하는 것을 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남북한 통합을 통한 해결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나 남북한간의 결합이라고 하는 것이, 정치적, 구조적 결합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당장 달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상황에 있어서 통합이라는 개념은 어디까지나 하

나의 문화적 차원에서, 말하자면 이기택선생님께서 그것을 우리 전통에 입각한 문화적인 동질성 또는 민족적인 동질성을 정신적 차원에서 즉, 비정치적인 영역에서 이룩함으로 해서 민족이 산이라든가 이산가족의 문제점을 극복해 볼려고 하는 그러한 것으로 저는 해석이 되어요, 그런 맥락에서 얘기한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대상과 대상지역에 있어서 우리 한국과 외국, 꼭 소련, 중공 등 공산권만이 아니라 일본, 미국 혹은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 또 대단히 주관적인 판단에 의한 것입니다마는 부정적인 의미에서 이산이든 긍정적인 의미에서 이주이든간에 다 연관이 되는 얘기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의 민족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남북한의 통일의 방법을 통한 민족의 통합이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본질적으로 보면 박상식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내용이 같은데 그것은 우리 민족이 해외에서 그 나라의 국적을 취득하든 영주하든 또 여러가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인 활동을 하든 간에 한국민이라고 하는 문화적인 전통과 국민인식과 그런 것을 같이 나눔으로서 바로 이기택교수가 말씀하신 복귀라는 문제와 연관되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하나의 한국민족이라는 것으로서 통합개념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것을 어떤 면에서 보면 화합이라는 말로 쓸 수 있고 이기택교수께서 복귀의 개념으로 설명하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마는, 그러한 방법이라는 것은 남북한간의 통일을 통한, 정치적인 통합을 통한 민족통합의 문제와는 다른 것이다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 기택

질문자에게 한 마디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복귀라는 말은 식민지의 유산이나 냉전을 대신할 수 있는 민족주의의 이데올로기에 대한 것입니다. 북한도 KAL 사건에 소련을 지지하지 말고, 랭군사태 없이 일단은 민족으로 복귀할 수 있었으면 한반도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첨경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추상적인 의미에서 김교수님이나 박교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틀은 얘기입니다.

사회

감사합니다.

질문하실 분들이 많이 계실 줄 압니다마는 다음 3주제에서도 비슷한 얘

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기회로 미루어 주시고 이상으로서 제 2 주제와 관련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발표된 내용과 토론은 내일 종합토론 시간에 다시 한번 간단히 요약을 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